

정동영 '전주역사 신축' 국비예산 확보

"대한민국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랜드마크이자 품격 있는 역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주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주역사 신축'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35년 된 노후화된 전주역사가 새롭게 신축될 경우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시의 관문으로서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애초 전주역사 관련 예산반영 여부는 기재부 예산담당자들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5일 새벽까지 정동영 의원이 직접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예결위 간사 의원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협조를 요구하고,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예산담당자들에게 전주역사 전면 신축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하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역사는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역사건축물 및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전주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역사시설의 전면개선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일례로 전주역사는 KTX 주요 정차역의 서비스면적 평균이 1인당 1.53㎡인 반면, 전주역은 0.23㎡로 경부선 평균(2.16)의 10분의 1 수준으로 협소하다.

신축되는 전주역사는 기차 선로 위에 짓는 '선상역사' 형식으로 짓게 되며, 한옥 양식의 현 전주역사는 그대로 보존해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사 전면개선은 전주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자 본인의 공약 사항으로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예산확보

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와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며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신축되는 전주역사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의 관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이자 품격 있는 역사(驛舍)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장시호,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사진)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6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투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제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이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퇴하세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모임) 주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가 축사하자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왼쪽 위)들이 고함을 지르며 안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상현 도의원, 남원-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신설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 1일 4회 운행 결정... 1개월 이내 도 인가 후 운행 개시 예정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원-인천공항 구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돼 앞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남원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는 이전 노선을 유지하면서 인천공항과 남원을 각각 기점 및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늘리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운행경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경부, 천

안-논산, 순천-완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오수 IC를 통해 덕과로 이어지는 경로이며, 운송업체는 4개 업체(경기고속, 전북고속, 호남고속, 금호고속)로 업체당 1회로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의원

6일 이상현 의원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남원에서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시민들이 늘었지만 그간 관련 노선이 없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지적하고, "노선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남원시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1개월 이내 도에서 인가를 한 후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불만 사항이 없도록 행정의 면밀한 지도감독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각 부처별 맞춤 공약으로 익산 국비 내내

2018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익산시 예산도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은 ▲농생명 ICT 검인인증센터 설치 10억(총사업비 10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 설계(서수~평장) 50억(총 3,652억) ▲익산 용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총 81억) ▲익산역 방음벽 건립 16.5억 ▲중소기계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3억 ▲귀금속 보석클러스터 조성 34억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의 특징은 기재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총액계상사업에서 성과가 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국회 초안부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국토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장·차관과 예산책임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지역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첫 예산에서 익산시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확보한 사업들이 익산의 미래 성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확정된 익산시 주요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20억원 ▲금강 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70억원 ▲국립 익산박물관 건립 114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131억원 ▲전국체전지원 총 57억원 ▲모현동 수영장 15억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원 ▲황동 배수개선사업 5억원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0억원 ▲웅포 보건지소 신축 4억원 등이다. /김진성 기자

조배숙 의원, 익산시 국비 179억 추가 확보

남산 석산복지지 유독성 침출수 처리 위한 대집행 예산 15억, 하수처리장 감량화시설 설치 예산 5억, 귀금속클러스터 조성 24억 등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179억이 국회에서 증액·확보되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은 6일,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및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실국장 등을 끈질기게 설득,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익산시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179억원을 추가로 증액·확보 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도 익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 예산의 확보와 익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 남·임·순 국비 52.4억 추가 확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6일 2018년도 남원·임실·순창 현안사업예산 총 52억4,200만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육정호 수변 관광도로, 순창 방축 입체교차로 등 길게는 50년 이상 묵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첫발을 댄 수 있게 됐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2차에 국비가 불용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시 한 번 도전할 기회를 갖게 됐다. 남원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남원 천연화장품 생산시설 구축, 순창 장내유용미생물 은행 건립 등은 지역발전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경찰서 직원관사 신축사업 16억8,200만원, 남원시 천연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 10억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2억원, 임실 육정호 수변 관광도로 타당성조사 사업 2억원, 순창 방축 입체교차로 변경사업 10억6,000만원, 순창 장내유용미생물 은행 건립 용역비 2억원, 임실·장수 국도 건설사업(설계용역) 5억원, 순창 구룡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4억원이 확보됐다. /김진성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자녀 4명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